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2월 미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높다
- WSJ: 임기 막바지 파월 의장의 연준, 내부 이견 커져
- CNBC: CNBC 설문 결과 “오일 상승 불구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 Bloomberg: ‘부유층이 미 경제 결정’ 의견은 논란이 있어

[미국 금융]

- Bloomberg: 금값 하락세... 에너지 물가로 금리 동결 우려

[개인 재정]

- YahooFinance: 연준 결정이 개인 재정에 미치는 여파는?

[중동 위기]

- YahooFinance: 휴전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힘들다

[유가]

- YahooFinance: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브렌트유 108달러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올해 들어 최고치...재용자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Macy’s 백화점, 매출 상향 조정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Prices Paid to US Producers Increase by More Than Forecast
2월 미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높다

-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도매 물가의 인플레이가 예상보다 1월에 가속화되어 중동 위기 전에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자물가지수가 1월에는 0.5% 상승했으나 2월에는 0.7% 더 높았다고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통계청은 밝혔다. 변동성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생산자물가지수는 0.5% 증가했다.
- 한마디로 중동 위기 오일가 상승 전에 이미 강한 물가 상승세가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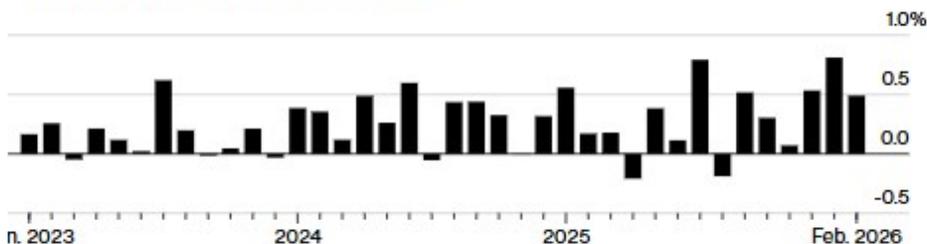
US Producer Prices Rose More Than Forecast in February

More than half of increase was due to services costs advance

Change in producer price index (MoM)



Change in PPI, ex. food and energy (MoM)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기사

WSJ: Powell's Second-to-Last Meeting Previews an Increasingly Divided Fed

임기 막바지 파월 의장의 연준, 내부 이견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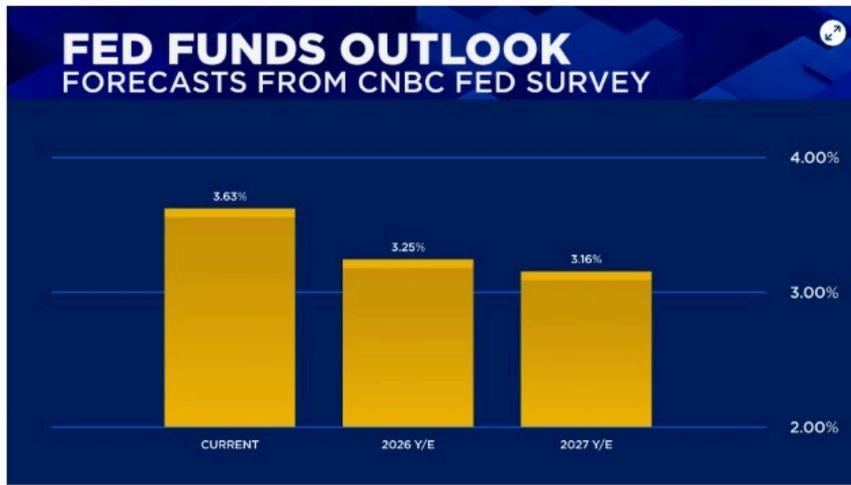
- 연준 관리들은 이번 주 수요일 발표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 연준 내부의 분열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가 임명한 세 명의 인사가 금리 동결이라는 다수 의견에서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 중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 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하나의 '블록'처럼 무리를 지어 같은 방향으로 표결하는 패턴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

CNBC: Fed to still cut rates this year, even as high oil prices spark an uptick in inflation: CNBC Fed Survey

CNBC 설문 결과 “오일 상승 불구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 CNBC Fed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일 가격은 지금부터 6개월간 평균 88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응답자들은 올해 연준 금리 인하를 1.8%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금리 인하를 단지 한차례 한뿐이라는 연준 선물 시장의 전망보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설문에 참석한 응답자는 펀드 매니저, 분석가들, 이코노미스트들 32명이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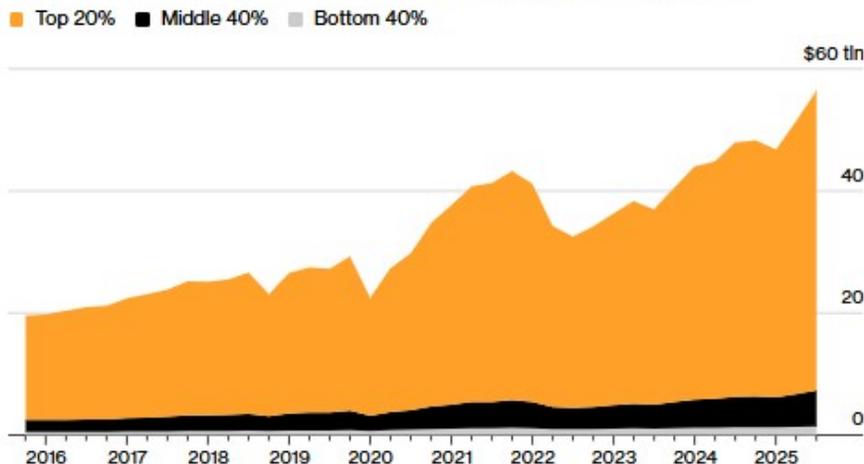
Bloomberg: US Economy's Strength Hinges on How Much the Rich Spend

‘부유층이 미 경제 결정’ 의견은 논란이 있어

- 부유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제 성장을 이끄는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은 약하다는 것이 경제 연구와 기업 전략에서 정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 흐름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구체적으로 Moody's Analyt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 같은 경제학자들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추정하면서, 30년 전에는 이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가계 지출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 논쟁은 자료가 불완전하고 발표 시차와 맞물려있다는 것. 옹호론자들은 실시간 데이터와 기업 활동에서 K자형 흐름을 확인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의론자들은 공식 지출 통계와 특정 항목 성장률은 그런 흐름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High Earners Saw Stock Wealth Surge Since Pandemic

Distribution of equity/mutual fund ownership by income groups



Source: Federal Reserve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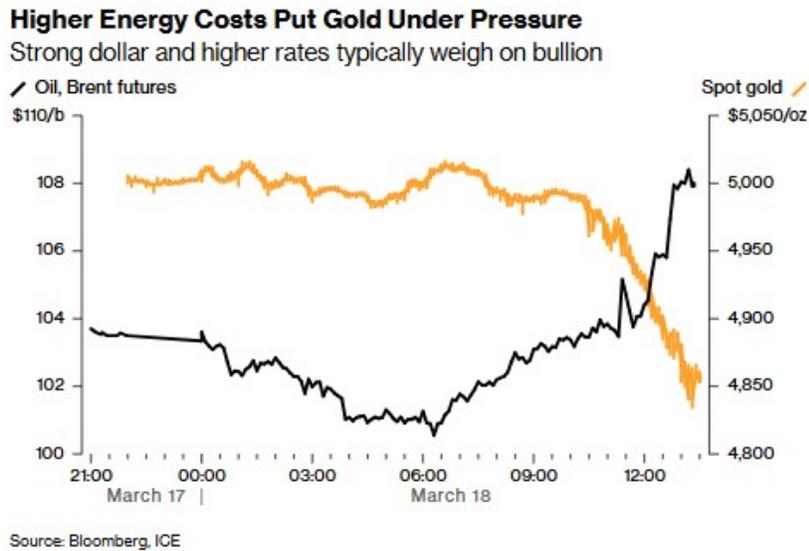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 Falls to One-Month Low With Focus on Outlook for US Rates

금값 하락세... 에너지 물가로 금리 동결 우려

- 금값이 하락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금값이 하락했다. 이는 공급망 혼란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이란 방송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정유소와 가스전이 피격됐다”고 보도한 후에 금값이 기존 한 달여 동안 비교해서 3.4% 가장 낮게 하락했다. 이란은 보복할 대상이 되는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리스트를 공개했다.
- 금값 하락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를 일으키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사

[개인 재정]

YahooFinance: How the Fed's rate decision affects your bank accounts, loans, credit cards, and investments

연준 결정이 개인 재정에 미치는 여파는?

-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 **예금:** 올해 예금 계좌 수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당좌 예금 전국 평균 이자율은 거의 변동 없이 0.07% 수준이다. 반면에 단기 저축 예금 이자율은 약간 높지만 0.39%인데 3%대 후반이나 4%까지 가능한 고수익 저축 계좌와 머니마켓펀드를 권장한다.
- **머니마켓:** 미 평균 수익률은 0.56%이며 고수익 머니마켓 계좌에서는 4%에 근접한 상품도 있다.
- **예금 증서(CDs):** 최근 1년 만기 CD 금리는 1.61%까지 소폭 하락. 더 나은 금리도 가능하며 예치금 최소액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기사

[중동 위기]

YahooFinance: Hormuz Reopening Looks Unlikely Without a Truce in Iran War

휴전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힘들다

- 트럼프는 커지고 있는 세계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려고 필사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서 휴전 없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란의 간헐적인 선박 공격과 기뢰 위협 때문에 이 중요한 해협의 통행량은 거의 끊겼으며, 사실상 외부가 아닌, 이란 정부가 해협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었다.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을 공급하며 통행 차질은 생산 감소, 연료 부족,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Jumps as War Escalates With Attack on Iran Energy Assets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에 브렌트유 108달러

- 이스라엘이 이란이 일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가운데 이란이 인접국의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 브렌트유는 오늘 화요일에 3% 이상 상승한 뒤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섰다.
- 친 이란계 FARS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보복을 약속하며,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립 국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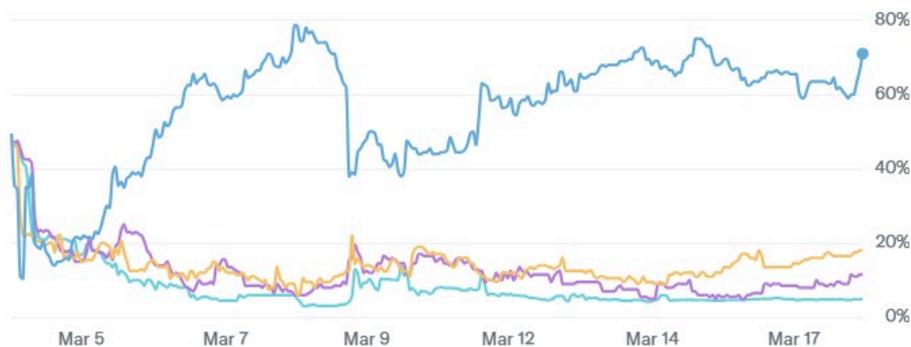
Powered by Polymarket

What will Crude Oil (CL) settle at in March?

\$541,269 Volume Ends on Mar 31, 2026

\$90+ 71% \$85-\$90 13% \$80-\$85 8% \$70-\$75 3%

All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Hit Highest This Year, Slowing Refinancing

미 모기지율 올해 들어 최고치...재융자 감소

- 미 모기지 금리가 올해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주택 재융자 신청이 급격히 하락했다.
- 30년 만기 모기지의 계약 금리는 3월 13일로 끝나는 주에 0.11% 올라 6.30%를 보였다.
- 이에 따라 미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집계하는 재융자 신청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8.5% 급감, 올해 들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Macy's Rises on Sales Outlook While Cautioning on Iran, Tariffs

Macy's 백화점, 매출 상향 조정

- Macy's 백화점의 1분기 순 매출을 최대 46억 3천만 달러, 매출을 최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와 관련 Macy's 주가는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는 회사 전망 발표 후 상승했다. 이는 회계 연도가 탄탄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 다만 Macy's는 전체 회계연도 전망은 신중한 보였는데, 이는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

[오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6,550.60	-443.3	-0.94%	📉
US 500	6,678.60	-37.6	-0.56%	📉
Dow Jones	46,542.18	-451.08	-0.96%	📉
S&P 500	6,678.63	-37.56	-0.56%	📉
Nasdaq	22,350.89	-128.64	-0.57%	📉
S&P 500 VIX	23.41	+1.04	+4.65%	📈
Dollar Index	99.59	+0.260	+0.26%	📈

<p>미국 USD 1,500.10 ▲12.10 +0.81% 03.18. ●</p>	<p>유럽 EUR 1,728.34 ▲11.26 +0.66% 03.18. ●</p>
<p>일본 JPY 940.94 ▲5.12 +0.55% 03.18. ●</p>	<p>중국 CNY 217.82 ▲1.63 +0.75% 03.18. ●</p>
<p>유로/달러 1.1536 ▲0.0031 +0.27% 03.17.</p>	<p>영국 파운드/달러 1.3355 ▲0.0037 +0.28% 03.17.</p>

환전고시환율
국제시장환율

<p>🇺🇸 미국 USD</p>	<p>1 1 달러</p>
=	
<p>🇰🇷 대한민국 KRW</p>	<p>1,500.10 1,500.10 원</p>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